

■ 주요 뉴스: 미국 퍼스트시타즌스, SVB 인수 합의, 연준 부의장은 은행권의 견고함을 강조

- 세계은행, '30년까지 글로벌 성장률 매우 저조할 전망. 과감한 정책 지원 요구
- ECB 슈나벨 이사, 추가 금리인상 신호 필요, 여타 인사는 금융안정 우선을 주장
- 중국 1~2월 공업이익, 전년동기비 큰 폭 감소, 비용 증가와 수요 둔화 등이 원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은행권 불안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2%], 달러화 약세[-0.3%], 금리 상승[+1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SVB 인수 합의 등이 호재로 작용
유로 Stoxx600지수는 자동차 및 헬스케어 부문 강세 등으로 1.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4% 상승, 엔화는 0.6%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중단 기대가 과도하다는 인식 등이 영향
독일은 EC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10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94.7원, -6.8원) 0.3% 하락, 한국 CDS 보합

주요지표					주요지표				
		3/27일	3/24일	전일대비			3/27일	3/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77.5	3,971.0	0.16%	국채금리 10y	미국	3.53%	3.38%	15bp
	유럽	444.72	440.11	1.05%		독일	2.23%	2.13%	10bp
	중국	3,251.4	3,265.7	-0.44%		영국	3.37%	3.28%	8bp
	일본	27,477	27,385	0.33%	CDS 5y	한국	44bp	44bp	0bp
	한국	2,409.2	2,415.0	-0.24%		중국	85bp	86bp	-1bp
환율	달러지수	102.86	103.12	-0.25%	위험지표	EMBI+	-	428	-
	유로화	1.0798	1.0760	0.35%		VIX	20.60	21.74	-5.24%
	엔화	131.57	130.73	-0.64%		WTI유	72.81	69.26	5.13%
	위안화	6.8820	6.8673	-0.21%	원자재	구리	410.5	410.2	0.07%
	원화	1,301.5	1,294.3	-0.55%		금	1,956.7	1,978.2	-1.0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퍼스트시티즌스, SVB 인수 합의. 연준 부의장은 은행권의 견고함을 강조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퍼스트시티즌스(First Citizens BankShares)가 720억달러로 SVB의 예금과 대출을 인수한다고 발표. 이는 SVB의 자산을 165억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의미. 나머지 900억달러의 자산은 FDIC가 처분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예정
- FDIC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퍼스트시티즌스에 700억달러 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를 지원할 방침. 이는 당국의 이번 사태 해결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의미
- SVB 인수 합의 발표 이후 은행권 불안이 다소 완화. 이에 퍼스트시티즌스(53.7%), 퍼스트리퍼블릭(11.8%) 등 지역은행들의 주가도 대부분 상승
- 연준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은 SVB의 실패는 잘못된 경영 관리의 전형적 사례라고 진단. 이는 이번 사태가 은행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은행의 경영 문제라는 의미. 또한 은행시스템은 안전하고 견고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 한편 지난 주 유동성 위험 논란이 불거졌던 도이치뱅크는 이날 금융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전일비 상승(6.15%). 도이치뱅크는 역내 은행권에서 약한 고리가 아니고, 펀더멘털 역시 매우 견고한 상황(Kepler Cheuvreux의 Nicolas Payen). 또한 상업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도 적은 편(Citigroup)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세계은행, '30년까지 글로벌 성장률 매우 저조할 전망. 과감한 정책 지원 요구

- '30년까지 글로벌 성장률은 평균 2.2%를 기록하여 30년래 최저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 특히 최근 은행산업을 주시하고 있는데, 금리상승과 금융긴축 등이 심화된다면 글로벌 성장둔화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
- 세계은행의 인더밋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 다만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 확대, 생산성 강화, 투자 촉진 등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뒤바꿀 수 있다고 발언

■ ECB 슈나벨 이사, 추가 금리인상 필요. 여타 인사들은 금융안정 우선을 주장

- 관계자들에 따르면, 슈나벨 이사는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발언.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는 ECB가 인플레이션 제어에 나서지만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준비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
- 반면 스페인 중앙은행의 데코스 총재는 은행권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ECB의 신중한 통화정책 결정이 요구된다고 지적.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의 심쿠스 총재 역시 ECB의 통화정책을 평가하는데 금융안정이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

■ 유로존 2월 기업대출, 4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 경기부진 우려 등이 반영

- 2월 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전월비 5.7% 늘어 1월(6.1%) 대비 낮은 수준. 최근 ECB의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부진 전망 등이 영향.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독일 3월 IFO 경기기대지수, 1년래 최고치. 은행 불안 불구 경기안정 기대 증가

- 3월 IFO 경기기대지수는 91.2를 기록하여 전월(88.4) 대비 상승. 일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독일 경제 안정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IFO의 Clemens Fuest).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향후 경미한 경기침체를 예상

■ 영란은행 총재, 최종금리 수준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낮을 전망

- 베일리 총재는 주요 정책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나, 금융위기 직전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 이는 금리인상 중단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 중국 1~2월 공업이익, 전년동기비 큰 폭 감소. 비용 증가와 수요 둔화 등이 원인

- 1~2월 공업이익은 전년동기비 22.9% 줄었고, '22년 전체로는 기업이익이 전년비 4% 감소. 국가통계국은 시장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평가. 비용 증가분이 제품가격 인상분보다 더 커진 것도 이익 증가세 둔화의 원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3/2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무역수지 및 도매재고,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 미국 1월 FHFA 주택가격지수 및 1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당국의 금융규제 강화, 다음 금융위기 예방에는 불충분 - 블룸버그

(Regulation Can't Prevent the Next Financial Crisis)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의 은행 불안은 규제가 강화되어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일례로 은행 규제를 강화하면, 은행시스템 외부의 금융기관들이 중개기능을 확대하고 해당 부문에서 위험이 증가
- 본질적으로 은행 사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활용(대출 등)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존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다 안전한 자산 보유와 자본비율 확대 등을 의무화할 수 있지만, 이는 이익 감소를 초래하여 사업 지속이 어려울 소지
- 또한 금융부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당국이 한정된 자원만을 활용하여 모든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

■ 연준의 통화긴축과 SVB 사태, 아시아 신흥국 영향은 이전 위기보다 제한적 예상 - WSJ

(The Fed and SVB Won't Sink Emerging Asia)

- 통상적으로 미국의 금리상승과 금융불안은 아시아 신흥국에 수출감소 유발 등 심각한 타격으로 연결.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이 미국의 수요 감소 여파를 일부 상쇄. 또한 최근 원유 및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 아울러 미국의 일부 중형은행들이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로 인해 아시아 신흥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미국의 은행 폐쇄가 아시아 신흥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국 혹은 해외 수요의 부분 감소에 불과(Goldman Sachs)

■ 스위스의 위험회피처 및 중립국 정체성, 위기에 직면 - Financial Times

(A Very Swiss Identity Crisis)

- 통상적으로 스위스는 국제 경제가 어려울 때 위험회피처로 인식. 하지만 최근 Credit Suisse 문제로 은행 불안이 나타났고, 스위스프랑화 약세가 급격히 진행. 스위스가 주변국들과 달리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한 점도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
- 일각에서는 Credit Suisse의 몰락이 스위스의 전통적 경영 방식을 따르지 않고 미국을 모방했기 때문일 뿐이며 스위스는 여전히 금융 중심지로서 강점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 다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유럽이 통합되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 시기인 만큼 외교정책만큼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점점

■ 투자자의 MMF 매입 급증, 안정성과 수익성 동시 추구 등에 기인 - Financial Times

(Money market funds swell by more than \$286bn as investors pull deposits from banks)

- EPFR에 따르면, 3월중 MMF로 2,860억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 기록. 이는 최근의 은행권 불안 등으로 은행 예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과
- MMF는 통상 미국 단기국채 등 환매가 용이한 안전자산에 투자.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동 자산들의 수익률 역시 수년래 최고 수준. 이에 따라 1월과 2월에 지속되던 MMF로의 자금 유입세가 은행권 불안을 더욱 가속화
- 투자대상 기준으로는 미국 국채 투자 MMF로의 유입세가 컸으며, 은행채와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는 프라임 MMF는 소폭 유출. MMF에 대한 수요증가는 안전자산 선호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수익률에도 기인한다는 평가도 존재(RBC Capital)

■ 최근의 은행 파산, 과도한 성장 전략 추구 등이 원인 - Financial Times

(The latest bank failures show the dangers of aiming too hi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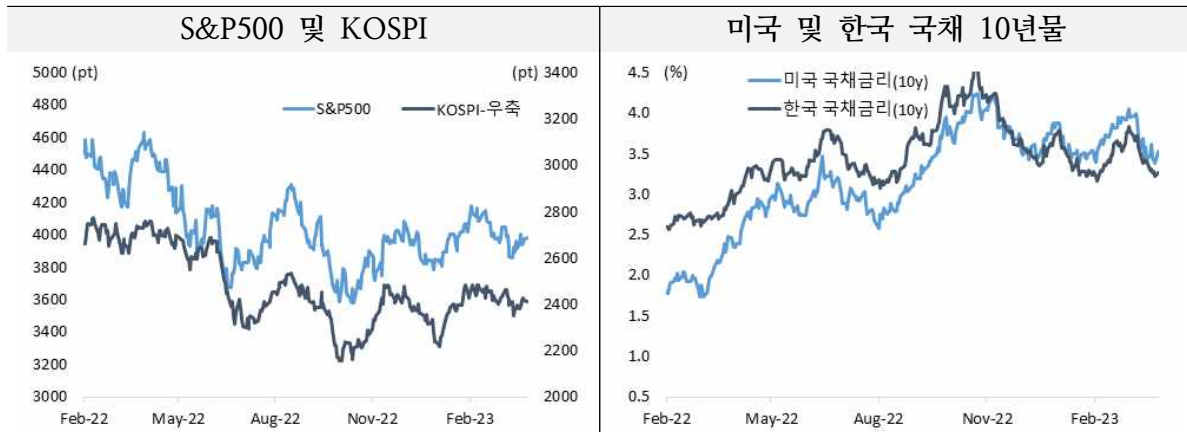
■ 은행권 위기, 시스템 내 숨겨진 레버리지 우려를 증폭 - 블룸버그

(Banking Crisis Raises Concerns About Hidden Leverage in the System)

■ 중국 당국의 기업가 통제, 자본유출 증가를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The cloud over China's entrepreneurs raises capital flight risk)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